

번역의 목적인 '지식의 대중화' 잊지 말아야 어떻게 번역할까?

글_강주현(번역가)

가끔 “번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 본격적으로 번역을 시작한 때는 IMF가 터졌을 때이니까 1997년 안팎이지만 “나도 번역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진 때는 대학교 4학년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언어학이란 학문을 접하고 프랑수어학 쪽으로 언어학에 관련된 서적을 뒤적거리니 《언어학의 열쇠》(제목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라는 책이 눈에 띄었다. 내가 언어학에 무지한 탓도 있었겠지만 그 책을 읽기가 너무 힘들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내가 이럴 때마다 잘 쓰는 말로 “에이 씨!”였다. 어렵사리 프랑수어 원본을 구했다. 차라리 프랑수어로 쓰인 원본이 이해하기가 더 쉬웠다. 허참,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 나라면 좀더 쉽게 번역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 출판계에 내가 참 좋아하는 편집자가 있다. 그 분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때 출판사 사장을 하던 분으로 우리나라 여성학 출판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분이다. 어느 날 그 분이 내 사무실에 놀러왔다.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분이 갑자기 내게 투덜댔다. 요즘에 출판사에 입사하는 친구들이 출판의 기본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번역 원고가 들어와서 읽어봤지. 그런데 잘 읽히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출판에서 손을 놓은지 오래 돼서 그런가 하고 편집자에게 읽어보라고 했지. 며칠 후, 그 직원에게 원고가 어땠냐고 물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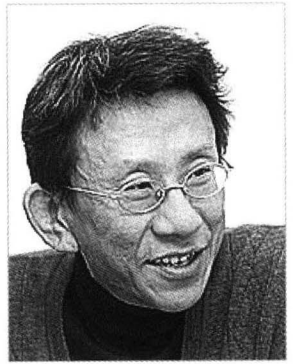
“열심히 읽으니까, 읽히던데요.”

“아이쿠, 번역책, 그것도 학술책이 아닌 번역책을 열심히 읽을 독자가 있을까?”

그분의 원칙은 간단하다. 책은 쉽게 읽혀야 한다. 심지어 학술서적도 쉽게 읽히는 책이 최고다. 물론 무지한 탓에 전후사정을 몰라서 제대로 읽히지 않는 책도 있기는 하다. 그래도 번역가라면 쉽게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분의 이런 원칙은 “나도 번역을 해볼까?”라고 생각한 동기와 일치한다. 어떤 책을 번역한다는 것은 번역가의 지적 놀음이 아니다. 무작위 다수를 위한 번역이다. 그 다수 중에서도 가장 지적 수준이 낮은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럼 그 지점이 어디쯤일까?

번역이란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내가 항상 궁금했던 의문이다. 나는 모르면 묻는다. 어린아이에게도 묻는다. 만나는 편집자들에게 물었다. 대체 몇 학년 수준에 맞추는 게 좋은 거야? 대부분의 편집자가 중학교 2학년 수준이 적당하다고 대답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이 어떤 건데?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럼 방법은 간단하다. 우리가 직접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를 읽어보면 된다. 거기에 쓰인 단어의 수준, 글을 엮어가는 방법 등을 보면 된다. 참고삼아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교과서를 읽어보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별 차이가 없다. 요컨대 중학교 평균 수준에 글쓰기를 맞추면 된다는 뜻이다.

쉽게 번역하라고 해서 원문을 무지막지하게 파괴하라는 뜻은 아니다. 원문에 충실하면서, 즉 직역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쉽게 번역할 수 있다. 그렇다고 원문의 문체에 연연하라는 뜻도



● 이 글을 쓴 강주현은

언어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프랑스 브장송 대학에서 수학했다. 한국외국어대와 건국대 등에서 강의. 현재는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노엄 촘스키를 비롯한 언어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했으며 역서로는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선물》 《나의 프로방스》 《게으른 산책자》 등 100여 권이 있다.

아니다. 모순되게 들리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직역의 뜻과 문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는 만연체와 간결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동구문과 능동구문도 문체의 일종이다. 우리말에는 수동구문이 없다고 무작정 능동구문으로 변환해서 번역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 이 둘 사이에는 어순의 차이가 있다. 어순에 강조의 의미가 깃들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문장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순이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뒷말을 미리 생각하고 말하겠는가? 그들도 우리처럼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글을 쓴다. 그럼 우리도 그들의 어순을 쫓아가는 것이 제1원칙이 아니겠는가. 물론 글의 경우는 쓰고 난 후에 약간의 조절이 더해진다. 번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This table has three legs. 이 문장을 '이 탁자는 다리가 3개다'로 번역하면 직역일까, 의역일까? 답은 직역이다. 의역이란 국어사전에 정의된 대로 '원문의 단어나 구절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전체의 뜻을 살리는 번역'이다. 달리 말하면, 번역가가 다른 식으로 문장을 바꿔 쓴다는 뜻이다. 이런 번역은 자칫하면 창작이 된다. 그럼 직역이란 무엇일까? 그러면서도 쉽게 번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단어가 우리말로 여러 가지 뜻으로 풀이된다. 각 단어에서 최적의 뜻을 선택해서, 최적의 방법으로 조합하는 것이 쉬운 번역이다. 이런 번역은 결코 직역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조합의 과정을, 노력을 귀찮아하기 때문에 의역에 기대게 된다.

번역을 제2의 창작이라 한다. 웃기는 말이다. 창작에 '제2'라는 수식어가 어떻게 붙을 수 있는가. 의역을 미화시키려는 구실에 불과하다. 번역을 굳이 다른 말로 한다면 '다시 쓰기'일 뿐이다. 비교해서 말하면, 빨간 벽돌로 된 건물을 보면서 하얀 벽돌로 똑같은 건물을 쌓는 것이다. 모르타르가 더 섞이거나 덜 섞일 수는 있어도 벽돌 대신에 대리석판을 끼워 넣을 수는 없는 것이 번역이다.

그래도 워낙에 어려운 학술서적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학술서적은 번역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래도 번역을 해야 한다면 왜 번역하겠는가? 같은 판에서 지내는 사람들끼리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라면 너무나 불쌍하다. 번역하는 목적은 언제나 지식의 대중화이고 민주화여야 한다. 그렇다면 쉽게 번역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 다시 직역 이야기가 나온다. 학술서적은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직역에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도 말했듯이 올바른 직역에서 무궁한 수고가 뒤따라야 한다. 학술서적에서 흔히 보는 직역은 하얀 벽돌을 빨간 벽돌과 크기까지 똑같이 하려고 억지로 깎아버린 꼴이다. 우리나라 무지개와 미국의 무지개는 다른 데도 말이다. 과장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인문학의 위기가 여기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 **▲▲**